

친숙한 불교 음악이 곧 포교

노래로 인문학 말하는 연등회 음악 기획자 김현성 씨



연등회 음악 기획자 김현성 씨는 지금까지 봉축위 앨범 '연등회의 노래' 7장을 기획했다. 또한 대불청과 템플스테이에서 개최하는 통통콘서트도 기획중에 있다.

김현성 씨는 가수 겸 작곡가 그리고 시인이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비롯해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안치환의 '인생은 나에게 술잔만 사주지 않았다' 등을 작곡한 김현성 씨. 또한 그는 매년 봉축위에서 발매하는 음반 '연등회의 노래' 7장을 기획하고 작사·작곡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의 글에 곡을 붙인 '무소유의 노래' 음반을 냈고 한용운 스님의 글과 시에 곡을 붙이며 불교 음악의 대중화를 꾀해 온 것이다.

등을 진행중에 있다. 책을 좋아하는 그는 법정 스님의 책 대부분을 읽었다고 한다. "스님의 글은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겸손 청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노랫말이 되겠다 싶어 스님에게 허락을 얻어 곡을 붙였죠. 하지만 음반 작업 중에 스님이 임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맑고향기롭게와 함께 모든 사안을 의논해 '무소유의 노래'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2013년 봉축위 음반 '연등회의 노래' 에도 '사랑하는 까닭' '꿈과 근심' 등 한용운 스님 시에 곡을 붙였다. "한용운 스님 작품 역시 음반 하나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곡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기회가 없어 음반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기획하는 '쓰담쓰담 통통콘서트' 역시 많은 젊은이들의 눈여겨 보길 바란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사찰로 소풍을 갔어요.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접했죠. 하지만 지금 젊은 대중들에게 너무 멀어진 느낌이에요. 이런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불교를 편하게 접하고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면 포교도 저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 놀이터 통통콘서트 펼쳐 불교계 대중문화콘텐츠 활성 발원

이런 그가 대한불교청년회와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이 4월 25/5월 30일 여는 '쓰담쓰담 통통콘서트'를 기획했다. "불교도 생활 문화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포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교를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화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어떤 청년들이라도 찾아와 즐기고 불교에 대한 훈훈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는 인문학과 음악을 결합한 공연인 '길위의 인문학', '인문학 콘서트',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노래의 인문학 콘서트'

KBS1 라디오 '생각의 비밀' 제작

전현수 박사 자문 받아 진행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2.6명, 연간 15,000여명이 자살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4백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살의 시대 마음 치유 열풍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KBS1 라디오가 5월 12일 가정의 달 특집방송으로 '생각의 비밀' (담당 PD 최영)을 제작 방영한다.

이는 불교수행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전현수 박사의 자문을 얻어 생각과 마음의 관련성을 풀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최영 PD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정체를 살펴볼 것이다. 생각과 관련된 의문점들, 오해와 진실들을 밝히고 분석해볼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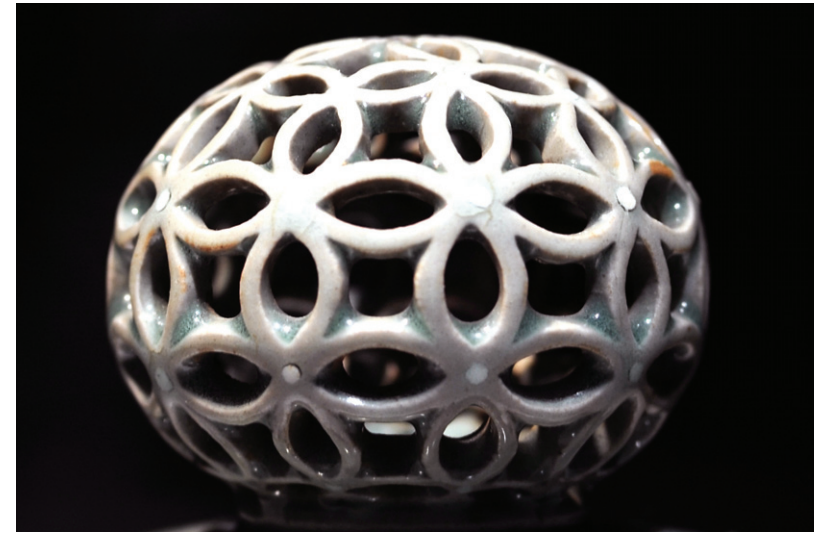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고려청자 칠보문 투각향로→고려청자 무량보주 투각향로 ㉞

향로에는 '여래화생' 의미 담겨



㉞ 무량보주 투각



㉞ 무량보주 투각 윗부분



㉞ 붓꽃문양 연꽃잎-영기꽃

고려청자는 누구나 다 아다시피 세계에서 빼어난 독자적 조형세계를 성취하여 고려청자를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정작 고려청자의 뛰어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적다. 그 고려청자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을 떴지 못하게 하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이른 바 '고려청자 칠보문 투각 향로'다. 그 만든 솜씨가 정교하고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조형의 절묘함이 극을 달하여 중요한 전시 때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걸작품이다. 그런데 100년 동안 '고려청자 칠보문투각향로(高麗靑瓷 七寶透刻香爐)'로 알려져 있어서 모든 도자기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부르며 심지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쓰여져 있다.

이미 앞서 칠보문의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폐기해야 할 용어임에도 왜 그 걸작품을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 그렇다면 향로의 조형으로 칠보를 투각한다는 말조차 성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회에서 칠보문이 보주들

이 수없이 겹치고 겹친 무량한 보주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무량보주문(無量寶珠文)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고려도 공돌들은 그것을 절묘하게 입체적으로 둥글게 만들어 그것도 커다랗게 투각하여 그 사이사이 틈에서 향기가 피어나도록 고안했다.

그런데 무량보주를 입체적으로 만들 때, 이 향로에서처럼 둥근 줄기모양의 보

투각 향로 영기화생 조형

생명 극대화한 무량보주 의미

주를 겹겹이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투각을 하여 표현한다. 이 향로의 무량보주를 세어보면 모두 40개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배열의 방법을 알 수 있고 무량한 수의 보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으므로 물이나 무량한 보주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상면에는 구멍이 나 있다. 그러므로 그 구멍은 로부터 물이나 보주도 무량하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은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그런 투각 문양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고려도 공돌들은 그것을 절묘하게 입체적으로 둥글게 만들어 그것도 커다랗게 투각하여 그 사이사이 틈에서 향기가 피어나도록 고안했다.

그리고 무량보주 밑에 있는 연꽃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붓꽃문양처럼 변형하여 영화시키고 있다. 내가 말하는 연꽃모양 영기꽃이다. 이 꽃을 연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연꽃잎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붓꽃문양 구름이나 붓꽃문양 모란은 구름도 아니고 모란도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붓꽃문양을 만드는 것은 사물을 영화(靈化)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연꽃에서는 여래나 보주가 생기지 않는다. 연꽃을 영화시켜 변형시켜야만 비로소 여래가 화생하고 무량보주가 화생하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영기꽃의 씨방에서 무량보주가 영기화생하는 조형이다. 말하자면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이다. 그만큼 보주의 존재와 상징이 중요한 것이다. 이 보주 대신에 여래가 앉아서 영기화생하는 광경을 보여 줄 수 있고, 보주 대신에 용이 영

기화생하는 광경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 무량보주투각 부분 자리에 여래가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영락없이 여래의 영기화생일 터인데, 그만큼 여래 자체가 생명을 극대화한 무량보주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여래를 영기화생시키기 위하여 창조한 매우 독창적이며 아름다우며 엄청난 의미와 상징을 품고 있는 작품을, 성립할 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틀린 용어도 아닌 용어로 부르고 있으니, 이것은 위대한 작품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향로는 단지 향공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래를 화생시키기 위하여 향을 피우는 것인데,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기에 이러한 절묘하고 독창적인 <고려청자 무량보주 투각향로>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틀린 용어를 바로 잡음으로써 잃었던 작품을 되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우방 (일화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역사에서 찾아낸 인생의 기술(Art of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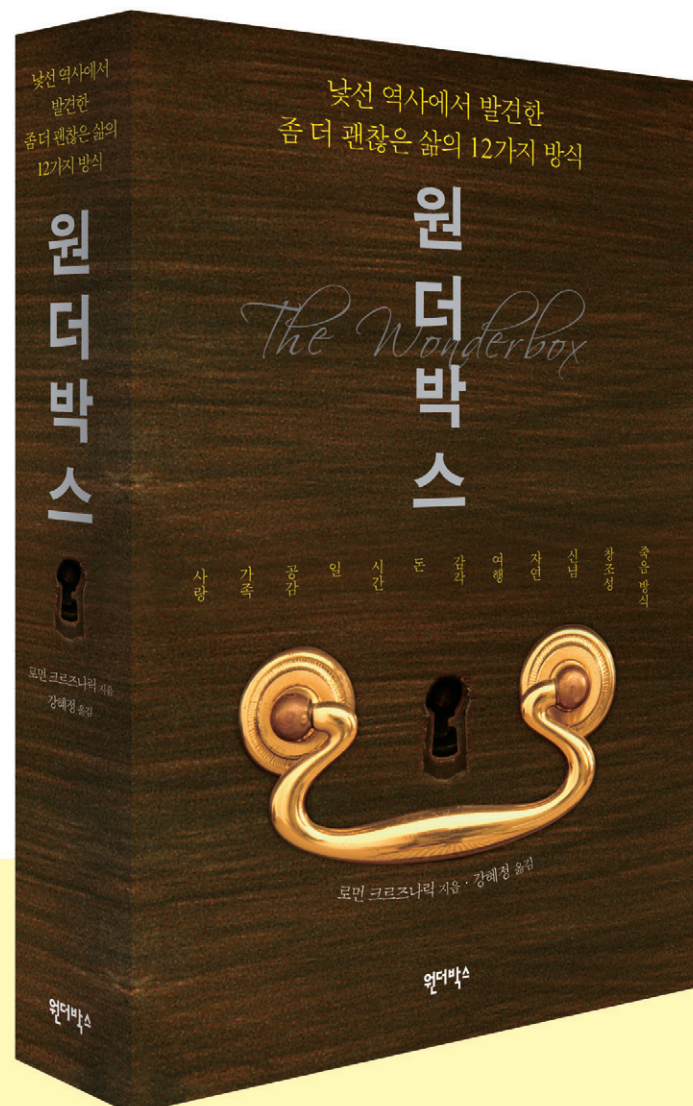


사랑, 가족, 일, 시간, 돈부터 공감, 신념, 죽음, 여행, 감각, 자연, 창조성까지 인생의 12가지 주제에 관한 통찰을 주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로만 크르즈나릭(Roman Krznaric)

문화사상가이자, 일상생활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이해와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인 인생학교의 초대 교수진 중 한 명이다. 로만은 옥스팜, 국제연합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 공감과 대화를 이용하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조언했다. <옵저버>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인생 기술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일-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 등을 썼다. 공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로만의 블로그(www.outrospection.org)는 세계 각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낯선 역사에서 발견한 좀 더 괜찮은 삶의 12가지 방식

원더박스 The Wonderbox

로만 크르즈나릭 지음 | 강혜정 옮김 528쪽 | 20,000원

* 원더박스는 불광출판사의 인문 교양 브랜드입니다.